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루카 21, 27-28. 36)



〈최후의 심판〉, 조토(Giotto di Bondone), 1305, 아레나 소성당, 파도바, 이탈리아

[제1독서]..... 예레 33,14-16

[화답송] 시편 25(24),4-5,7,8-9,10과 14
(◎ 1)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견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제2독서]..... 1테살 3,12-4,2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복음] 루카 21,25-28,34-36

[성가 안내]

- 입당성가: [92] 구세주 내 주 천주여
- 봉헌성가: [340] 봉헌
[513] 면병과 포도주
- 성체성가: [160] 하느님의 어린양
[167] 생명이신 천상 양식
- 파견성가: [91] 구세주 빨리 오사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⁵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²⁶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²⁷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²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³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덮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³⁵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³⁶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성모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신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다는 믿음은 초대 교회 때부터 생겨났다. 이러한 믿음은 여러 차례의 성모님 발현으로 더욱 깊어졌다. 1854년 비오 9세 교황은 ‘성모 마리아의 무죄한 잉태’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1838년 교황청에 서한을 보내 조선교구의 수호자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로 정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 한국 천주교회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한국 교회의 수호자로 모시고 있다.

☆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 12월 8일(토) 오전 7시, 오후 7:30

묵상

오늘 교회는 전례주년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대림’이라는 낱말은 ‘오심’, ‘도착’을 뜻합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하도록 준비하라고 권고합니다. 성탄 때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죄만 빼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참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서른 살이 되실 때까지 나자렛에서 사셨습니다. 그 뒤에 팔레스티나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수난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다시 앉으셨으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에 살아 계실 때 이루신 구원 행위를 통하여 모든 이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인간과 세상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과업은 이 세상의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오르실 때 인류 구원의 과업을 교회에 맡기셨고, 당신의 구원 행위를 우리 안에서, 특히 전례와 성사를 거행할 때 재현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목적은 모든 이의 구원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살아야 할 단순하고도 분명한 방식을 보여 줍니다. 깨어 있는 마음으로 항구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잣대가 되는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에 맡기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늘 실천하는 것입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

행사 안에 계신 예수님? 사랑 안에 계신 예수님!

”



찬미예수님!
사랑합니다!

방명준 라우렌시오 보좌 신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교회의 시간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밀려오는 후회와 부끄러움에 숨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고, 또 그래도 이젠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조금 우쭐해졌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끄러웠던 순간들도, 조금 우쭐해졌던 순간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문득 ‘한 번도 추위가 뼈에 사무치지 않으면 매화가 어찌 코를 찌르는 향기를 얻으리오.’라는 시구가 떠오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해에는 다가오는 추위를 피하기보다는, 그 추위를 통해 더욱 깊은 향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서 쓰는 향수로는 흉내 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9, 10, 11월은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본당에 굵직굵직한 행사들도 많았고, 여러모로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행사와 모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중에서도 제가 문제를 준비했던 ‘성경 퀴즈대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문제를 출제한 후에 많은 분들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조금 아리송한 문제들의 정답을 묻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이에 저는 또 아리송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정답’이신 그분께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모두 ‘정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답’이신 그분을 놔두고, 엉뚱한 곳에서 ‘정답’을 찾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잠깐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정답이신 그분께 가고 있는가? 혹시 정답을 찾으면서도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성경 퀴즈대회를 준비하면서 만났던 어느 두 자매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분은 퀴즈대회 전에, 다른 한 분은 대회가 끝나고 만난 분이었습니다. 먼저 퀴즈대회 전에 만난 자매님은 제게, 출제한 문제보다도 문제집 서두에 쓴 글이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시간으로 따지면, 문제를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지만, 마음으로 따지면, 대회의 목적과 지향을 고민하는 것에 더 마음을 쏟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퀴즈대회 전에 만난 분이 ‘기쁨’이었다면, 대회가 끝나고 만난 분이 ‘감동’이었습니다. 퀴즈대회가 있던 당일, 대회가 끝나자마자 연세가 지긋하신 어느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153번 문제... 마지막 문제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3번 문제를 마지막 문제로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하시던 어느 할머니. 혹시 여러분들은 153번 문제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정답을 외울 필요도 없는 바로 그 문제. Q: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는 물음인 동시에, 늘 우리들에게도 대답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이 물음은 무엇인가? (요한 21,15-19)

정답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다른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사랑’이라는 ‘같은 마음’으로 끝나기를 기도했던 제 마음을 할머니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분은 할머니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아마 올 한 해도 많은 행사들과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공동체는 본당 승격 25주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행사와 모임들을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분이 빠져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행사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사랑 안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들의 봉사와 정성이
예수님을 ‘살리는’
‘사랑’이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법정 스님은 절에 연등이 너무 많이 걸려 있으면, 꽃과 잎을 볼 수 없다고 크게 나무라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등을 단다고 하더라도 자연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릴 정도면, 한낱 욕심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봉사와 정성이 예수님을 ‘가 리 는’ ‘욕 심’ 이 아 니 라, 예수님을 ‘살 리 는’ ‘사 랑’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nd

CCD-News
Annual School Picture

There was an Annual School Picture Day on Sunday, November 18th. During recess, K, 1st, 2nd, 3rd, 4th, and 5th grade students had their pictures taken in front of our Mary Statue. Also, Fr. Paik and Fr. Bang joined this tradition with pleasure. There will be another picture day on December 2nd for the classes that did not have their pictures taken.



K



1st



4th



5th



3rd

First Sunday of Advent

December 2, 2018



Advent is Here!

Today is the beginning of Advent, the time when we prepare for Christmas.

The Word “**advent**” comes from the Latin word that means “**coming**”.

In Advent we are preparing for Jesus’ coming. We look forward to Christmas, which is the celebration of His first coming and we also look forward to His second coming.

Did you know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have ready for Christmas is a clean soul?

During Advent you can try extra hard to be good. It is also a very good idea to go to confession before Christmas so that your soul will be good and clean when Jesus comes!
<www.kidsbulletin.com>

ANNOUNCEMENT



Winter Coat Drive to support the Christ House (thru December 9, 2018)

- **Donation Items :**
Gently used or new winter coat, new hats, scarves, and gloves **for adults**
- **Donation Boxes** are located at the lobby in the **Hasang Building**

로고스 LOGOS

로고스 청년회 대림 피정



로고스회는 지난 11월 24일(토)에 조금 이른 대림 피정을 가졌습니다. '기다림'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피정은 볼티모어 성당의 청년들 6명을 포함한 서른 여섯 명의 청년들이 함께 다가올 대림을 준비하였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방명준 보좌신부님께서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볼티모어 한인 순교자 천주교회의 이무창 사도 요한 보좌 신부님께서 강론을 해주셔서 피정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청년들은 여러 가지 게임과 퀴즈 및 대림 달력 만들기를 하며 은총의 대림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의 밤

2018년 은혜의 밤이 11월 14일(수) 오후 7시부터 본당에서 열렸다. 우리 본당 출신 첫 번째 사제 백운택 아오스딩(동북부 성령봉사회 지도 신부) 신부는 “오직 사랑뿐입니다”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이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소화 데레사 성녀의 말씀을 전하며,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의 해답임을 알게 해주셨다. 조용히 흐르는 성가와 함께 참가자들은 백운택 신부의 치유 안수를 통해 성령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는 회개와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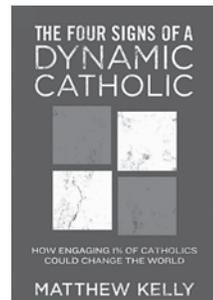
동중부 기초 성령세미나

동중부 성령 봉사회에서 주관하는 기초 성령세미나가 11월 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이틀 동안 개최되었다. 김용호 요셉 신부(볼티모어 한인 성당 주임)와 김 블란디나 수녀의 감동적인 강의를 비롯해 찬양과 강의, 면담과 고백성사가 있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50여 명의 참가자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뜨겁게 느끼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령 안에서의 새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우리 본당에서도 3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해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교육부 신심 세미나

교육부(부장 안윤민 바실리오) 주관 신심 세미나가 지난 11월 25일(일) ‘열정적인 가톨릭 신자들의 네 가지 싸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미국의 유명한 가톨릭 저자이자 연설가인 매튜 켈리의 저서 ‘The Four Signs of Dynamic Catholic’을 중심으로 열정적인 가톨릭 신자들의 네 가지 특징인 기도(Prayer), 배움(Study), 선행(Generosity) 그리고 선교(Evangelization)를 항목별로 짚어보면서 ‘나는 가톨릭 신자로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의무적으로 주일미사나 신심행위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허하게 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저자는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우리 자신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 싸인을 발전시키고 조직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면 교회와 세상은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의를 진행한 안윤민 바실리오 교육부장은 “앞으로는 신심을 고취할 수 있는 세미나를 더욱 많이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더 많은 신자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전 신자 대림 특강

- 1 “길들여지는 삶”**
 - 일시 : 12월 9일(일) 오후 2시 - 4시(성당)
 - 강사 : 허석훈 루카 신부 (가톨릭대학교 교수/철학 박사)
 - 오후 1:30부터 찬양으로 시작
- 2 “대림절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 일시 : 12월 13일(목) 오후 7:30 - 9시(성당)
 - 강사 : 민병섭 바오로 신부 (리치몬드 성당 주임신부/성서학 박사)
 - 오후 7시부터 찬양으로 시작

1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의무 대축일 미사에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2월 8일(토) 오전 7시, 오후 7:30

2 대림 합동 고해 성사

- 일시 : 12월 18일(화) 오후 3시-5시, 오후 7시-9시
- 오후 7:30 평일미사는 오전 11시로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12월 2일(일) 오전 11:30(B-1,2)

4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12월 2일(일) 오후 1시(B-1)

5 동전모이기 저금통 배부(복지부 주관)

- 불우 이웃돕기 동전모이기 저금통을 배부합니다.
- 대림시기 동안 동전을 모아 주님공헌 대축일(1월 6일)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하상 성인학교 작품 전시회

- 동양화반(수묵화, 민화) 작품 전시회 : 12월 2일(일) 오전 10시-오후 1시(친교실)
- 문의 : 김 율리아나 교장 (703)217-2775

7 레지오 마리아 연차 총친목회

- 일시 : 12월 2일(일) 오후 1시(친교실)
- 대상 : 행동단원

8 병자 영성체

- 일시 : 12월 7일(금)
- 신청 : 조영인 요셉 (703)264-0050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2월 2일(일)	대림 제1주일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오후 1시, B-1), 레지오 연차 총회(오후 1시, 친교실)
3일(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4일(화)	대림 제1주간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하상관)
5일(수)	대림 제1주간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성서 통독반(오후 7:30, 도서실), 첫 영성체반(오후 8시), 바오로 소공동체 모임(오후 8시)
6일(목)	대림 제1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7일(금)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병자 영성체, 성체강복(오후 7:30 평일미사 후), 회장단 회의(오후 8:15), CLC 모임(오후 8시), 고등부 대림피정-12월 9일(일)까지
8일(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대축일 미사(오전 7시, 오후 7:30,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33일 기도 봉헌식
12월 9일(일)	대림 제2주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1,2),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복사단 모임(오후 12:40, B-1,2), 전 신자 대림 피정(오후 2시, 성당) 주일학교 교사회의(오후 1시, 교무실)

2차 헌금 (12월 8일, 9일)

다음 주일은 Catholic Charities Christmas Collection (크리스마스 자선)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 성체강복

- 일시 : 매일 첫째 금요일(12월 7일) 미사 후

10 CYO(고등부) Winter Retreat

- 일시 : 12월 7일(금) 오후 6시 - 12월 9일(일) 오후 1시
- 장소 : Brethren Woods Retreat Center, Keezletown, VA
- 등록 : 교실 또는 사무실
- CYO 등록학생 : \$50 / 비등록 학생 : \$75 (1인당)
- 문의 : 권운우 스테파노 (571)244-0333

11 33일 기도 봉헌 및 봉헌식 안내

-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기도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봉헌 및 봉헌 갱신식이 있습니다.
- 일시 : 12월 8일(토) 7:30 미사 후
- 준비 : 고해성사, 성모님께 바치는 글, 봉헌예물
- 초, 장미, 스키피라는 본당 입구에서 미리 구입(\$10) 바랍니다.
- 주최 :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문의 : 김지은 그라시아 (571)243-5054

12 단체장 회의

- 일시 : 12월 9일(일) 오전 11:30(B-1,2)

13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12월 9일(일) 오후 1시(B-3,4)

14 복사단 모임

- 일시 : 12월 9일(일) 오후 12:40(B-1,2)

15 꾸르실료 송년의 밤

- 일시 : 12월 15일(토) 오후 6시(친교실)
- 모든 꾸르실리사파는 참석바랍니다.
- 문의 : 서경원 마르티노 (571)236-7071

16 장례절차 세미나 자료(영어 번역판)

- 지난 9월, 10월에 강의한 세미나 슬라이드 영어 번역판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7 성탄 제대 꽃 봉헌 접수

- 성탄 제대에 꽃 봉헌을 하실 분은 제대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 황 줄리아 제대회장 (703)628-5262

교황님의 12월 기도 지향

일반: 평화를 위한 봉사

사랑과 대화의 언어가 언제나 갈등의 언어를 이기도록 기도합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2월에는 그동안 밀린 부분을 차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KACM TV 하이라이트

- 12월 6일(목) 오후 5:00-6:00
- 12월 7일(금) 오후 8:00-9:00
- 12월 9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은혜의 밤 특강 : 백운택 아오싱 동북부 성령봉사회 지도 신부 특강 녹화중계
- 미니 드라마 : 가족 특목

NGMS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MS(옛 IBM) 주차장 주소

-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 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9:05**
- 알링턴 7번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8:45**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11월 25일(그리스도왕 대축일)

- 주일헌금 \$ 7,093.37
- 교무금 \$ 12,400.00
- 교무금(크레딧카드) \$ 4,210.00
- 특별헌금 \$ 186.75
- 2차헌금 \$ 0.00
- 합계 **\$ 23,890.12**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금(데레사), 김영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제마),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박승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버노), 정미래(아네스)

♥ 군복무자

-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마카벨),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보),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멜릭스), 윤벽철(프란치스코), 주기환(말린),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셀(마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더 (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경(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요세), 박홍모(이나시오), 제임스 리(호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 (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이정태 요셉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운 (마카엘) 703-881-1155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828-3373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 (바오로) 703-907-9299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첼로 레슨 첼로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전공생 입시레슨(성인 취미 레슨가능) Kim-Cello.com 703-472-3208	예비 펫 그루밍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원 통증·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